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

- 2014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기 간: 2014. 10. 27(월) ~ 10. 31(금)

■ 장 소: 일 본(교토, 나라, 오사카)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 목 차 〉

I. 연 수 개 요	3
II. 연수 주요 일정	4
III. 일본국 및 방문도시 현황	5
IV. 방문기관별 연구내용	8
V. 방문성과 및 시사점	28

- 2014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 개요

1. 연수기간: 2014. 10. 27(월) ~ 10. 31(금) 【4박 5일】
2. 연수국가: 일본(교토, 나라, 오사카)
3. 연수목적
 - 일본 교토, 나라, 오사카 지역의 주요 시설 견학과 문화탐방을 통해 국제적 시각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 해외의 우수한 정치제도, 마을만들기 사업, 자원봉사시스템, 소방 시설, 생활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4. 참가인원: 12명(의원 8명, 전문위원 1명, 수행직원 2명)

연번	소 속	한 글	구 분	성별	비 고
1	고양시의회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	여	
2	“	강주내	부위원장	여	
3	“	김영식	위 원	남	
4	“	박상준	위 원	남	
5	“	윤용석	위 원	남	
6	“	이규열	위 원	남	
7	“	이윤승	위 원	여	
8	“	조현숙	위 원	여	
9	의회사무국	이상권	전문위원	남	
10	“	이정범	의사팀장	남	
11	“	신효정	주무관	여	
12	“	윤병철	주무관	남	

II 연수 주요 일정

월 일	세 부 일 정	비고
제1일 10/27(월)	○ 주요 역사·문화 시설 견학 ▶ 오사카성, 일본 역사박물관 ○ 지역 활성화 현장 방문 ▶ 도톰보리(道頓堀) 및 신사이바시(心齋橋驛)	김 포 ↓ 간사이
제2일 10/28(화)	○ 「나라 마을만들기 센터」 방문 ▶ 역사적인 환경보전과 지역진흥 활동 벤치마킹 ▶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나라마치」 견학	
제3일 10/29(수)	○ 교토시의회(京都市會) 방문 ▶ 일본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시찰 ○ 교토 부립 사가노(嵯峨野) 고등학교 시찰 ▶ 우수한 학생 육성 시스템 견학	
제4일 10/30(목)	○ 교토 사람·마을 교류관 견학 ▶ 살기 좋고 교토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항 연구 ○ 교토시 재해보ランティア센터 방문 ▶ 자원봉사자 운영시스템 및 주요활동사항 견학 ○ 교토 시민방제센터 시찰 ▶ 태풍, 지진 등 선진 방재시스템 자료수집 ○ 교토 니시키(錦) 시장 방문	
제5일 10/31(금)	○ 상가활성화 성공사례 ▶ 오사카를 대표하는 재래시장 쿠로몬 시장 시찰 ○ 일본 전통문화 및 사카이시청사 견학 ▶ 다이센공원 견학 ▶ 사카이시청 및 전망대 시찰	간사이 ↓ 김 포

Ⅲ 일본(日本)국 및 방문도시 현황

가. 일반현황

- 국 명: 일본국(日本國, JAPAN)
- 면 적: 377,835km²(한반도의 1.7배)
- 인 구: 127,380,000명(남한의 2.5배)
- 행정단위: 1都(도쿄), 1道(홋카이도), 2府(오사카,쿄토), 43縣
-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의회제도: 양원제(참의원 6년: 242명, 중의원 4년: 480명)
- 국내총생산: 5.36조 달러(12년, 세계 3위)
- 1인당 GDP: 38,491 달러(13년, 세계 24위)

나. 일본의 자치단체

- 광역적 지방공공단체(都·道·府·縣)와 기초적 지방공공단체(市·町·村)
- 단체장: 광역 - 도·도·부·현 知事, 기초 - 시·정·촌 長
 - ※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 임기 4년
- 지방의회 의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

다. 일본 소개

-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국토는 일본열도의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개 섬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37만 7,835km²이다.
- 일본의 인구는 1억 2,738만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의 인구 대국이며 수도인 도쿄를 둘러싼 현들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스 형태로 이 지역에만 3,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 방문도시 현황



가. 교토(京都)

- 면적: 827.90 km², 인구: 1,465,816명(2009년)
- 일본의 오래된 고도(古都)로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토는 794년부터 일본의 수도로 약 1천년동안 자리 잡았던 지역이다.
- 794년 이곳에 새도읍을 조영하고 천도하여 헤이안시대(平安時代) 국정의 중심지로 번영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경제·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 교토는 전국 최고의 학술·문화도시로 교토대학, 도시샤대학 등 많은 대학과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 관광명소로는 옛 왕궁인 교토고쇼와 니조성, 가쓰라이궁이 있고, 그밖에 금각사, 은각사, 청수사, 고류사, 헤이안신궁 등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신사가 2,000여개 남아 있다.

나. 나라(奈良)

- 면적: 276.84km², 인구: 365,470명(2009년)
- 일본 긴키 지방 나라 현 북쪽에 위치하는 시이며, 현청 소재지이다. 8세기에 헤이조쿄(平城京)가 자리 잡았던 고도이다.
- 나라 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인 동시에 고도 나라의 문화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이고, 연간 관광객은 약 1,300만명이다.
- 서쪽은 도다이지 · 고후쿠지 · 가스가타이샤 · 쇼소인 등을 비롯한 호화로운 건축 · 조각 등 문화유산이 많고 동부 쪽에는 가스가산 등의 구릉지에 원시림이 펼쳐져 있다.
- 예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고전행사가 많고, 칠기 · 떡 · 붓 등의 전통 공예품의 생산도 활발하다.

다. 오사카(大阪)

- 면적: 222.30km², 인구: 2,661,700명(2009년)
- 오사카 시(일본어: 大阪市 おおさかし, 대판시)는 일본 오사카 부의 도시로 혼슈 긴키 지방의 요도가와 강하구 오사카 만에 위치해 있다.
- 오사카 시는 또한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사카 부의 부청 소재지이다.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 오사카는 16세기부터 상업지역을 형성하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하를 통일하여 오사카성을 세우고 17세기 에도시대에는 물산유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시가지가 확대되었다.
- 오사카는 일본 교통의 중심지로 수도인 도쿄와 신간선 철도로 연결되었고, 1994년 간사이 국제공항을 개항하였으며, 일본만국 박람회, 꽃박람회, 그리고 1995년에 APEC을 개최하였고, 국제적인 레저시설과 스포츠 시설 등이 건설되면서 첨단 산업시설과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IV 방문기관별 연구내용

1. 나라 마을 만들기 센터(Nara Machizukuri Center Inc)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4. 10. 28(화) 10:00~12:30
- 장 소: 세미나실
- 참 석 자: 니주켄 타치오(二十軒 起夫) 이사장, 신노 타케요시(神野武美) 자원봉사자(前아사이 신문 기자) 등

● 기관현황

- 설 립: 1979년 11월
- 위 치: 나라시 中新마을 2-1
- 홈페이지: <http://lestariheritage.net/nara/nara.htm>
- 주요활동

[Machizukuri]는 일본어로 “기존의 도시 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사단법인 「나라 Machizukuri 센터」는 시민의 활동,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에 의해 조직된 비영리 법인이다.

역사적인 도시 지역을 보존하고 시민의 참여 과정을 통해 나라현의 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립 이래 20년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학생·학자·기술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폭넓은 지원이 나라 Machizukuri 센터의 주요 기둥이 되고 있다.



나라 마을만들기 센터(舊나라시청사)



나라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단체사진

● 방문내용



니주켄 이사장의 나라 마을만들기 센터 브리핑



니주켄 이사장과 기념사진

니주켄 타치오(二十軒 起夫) 이사장과 신노 타케요시(神野武美) 자원봉사자(쏰아사이 신문 기자)가 우리 의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센터 세미나실에서 니주켄 이사장으로부터 나라 마을만들기 센터 현황과 추진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 설명 후 질의응답을 가졌다.

니주켄 이사장은 나라 마을만들기 센터가 지역의 도시 보전을 논의하기 위해 각종 회의 개최 및 프로젝트의 활발한 추진, 역사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추진 프로젝트로는 ▶역사적인 도시 공간의 장점을 Revaluating, ▶역사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마을을 Revitalizing, ▶많은 환경 보전 활동과 연결을 목표로 Machizukuri 네트워크 연결, ▶아시아 및 도시 보존을 위한 서태평양 네트워크(AWPNUC) 보존 운동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 연결 등이 있다고 한다.

기술 전문가가 도시 보전에 대해 컨설팅하고 주민들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토론하며,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을 위한 강력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마을에 참여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에 우리 자신의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독서활동, 어린이 노래 축제, 작은 집 만들기 프로젝트, 반딧불 감상 등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 곁에 늘 함께하는 점은 배울 점이다.

더불어 국제 교류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어, ▶태국 치앙마이 도시

개발 연구소 재단과 교류, ▶수마트라 아체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 지원 및 서태평양 네트워크 활동, ▶지난 2012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북촌 문화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고 한다.

○ 나라마치 견학

나라마치(Naramachi)는 더 전통적인 쇼핑 하우스를 복원하여 만들어졌으며, 널리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니주켄 이사장의 나라마치 현황 설명



나라마치 전경



전통적인 쇼핑 하우스 내부



전통 가옥 내부에 우물 보존

● 시사점

역사적인 지역 사회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곳에 살고 있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인재들이 경험을 교환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펼쳐 도시계획 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점은 고양시의 지역 특성과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교토시의회(京都市會)

- 방문일시: 2014. 10. 29(수) 10:00~12:00
- 장 소: 1회의실
- 참 석 자(접견의원 4명)



무쿠다 다카토모
(棕田隆知, 자유민주당)



고바야시 마사키
(小林正明, 자유민주당)



스즈키 마사오
(鈴木 マサホ, 민주당)



히오키 후미아키
(ひおき 文章, 공명당)

● 기관현황

- 위 치: 京都市中京區寺町通御池上る上本能寺前町488番地
- 홈페이지: <http://www.city.kyoto.jp/shikai/>
- 일반현황

의장은 나카무라 산노스케(中村三之助)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부의장은 이노우에 노리코(井上教子) 공명당 소속 의원이다.

교토시회는 147만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을 가지고 구성된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한다. 또한, 교토시의회 의원 정수는 69명으로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

※ 교토시는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의 각 시와 함께 관례에 의해 시의회를 시회(市會)라고 부르고 있다.

시회는 연 4회(원칙으로서 2,5,9,11(12)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임시회가 있으며, 시회의 활동은 회기 중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기 외라도 위원회를 열어, 청원심사의 시정의 보고를 듣거나 시설 등을 시찰하고 있다.

○ 상임위원회

[경제총무위원회 14명] : 재무행정기관, 종합기획국, 산업관광국 회계 관리자 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생활환경위원회 14명] : 환경정책국 및 문화시민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복지위원회 13명(결원 1명)]: 보건복지국 및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을만들기위원회 14명]: 도시 계획국과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통수도소방위원회 14명]: 소방서, 교통국 및 상하수도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토시회 의원과 단체사진



교토시회 의원 등원 안내 전광판

● 간담회 내용

교토시회(京都市會) 무쿠다 다카토모(棟田隆知, 자유민주당), 고바야시 마사키(小林正明, 자유민주당), 히오키 후미아키(ひおき 文章, 공명당), 스즈키 마사오(鈴木 マサホ, 민주당) 4분의 의원이 우리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방문단을 맞아 주었다.

무쿠다 의원이 교토시회 자유민주당 회파의 간사장을 맡고 있어 교토시회를 대표하여 인사를 했으며, 교토시와 고양시 간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정을 쌓아가기를 기대하며, 교토시와 시회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무쿠다 의원의 환영인사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 인사말씀

이에 대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은 고양시의회 대표단 일행을 열렬히 환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의 도시 교토시와 인구 100만의 아름다운 자연을 갖추었으며, 국제컨벤션산업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자랑하는 고양시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높여가자고 말했다.

교토시의 2014년 예산은 1조 6천억엔에 달하며 부채없이 흑자 재정으로 꾸려가고 있다. 교토시회 소속 공무원은 교토시 소속으로 의회에 파견되며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 교토시 복지정책은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교토시회는 4차에 걸쳐 추진해온 시회 개혁의 흐름을 계승하고, 의회 기능의 충실·강화 및 열린 시회의 한층 더 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회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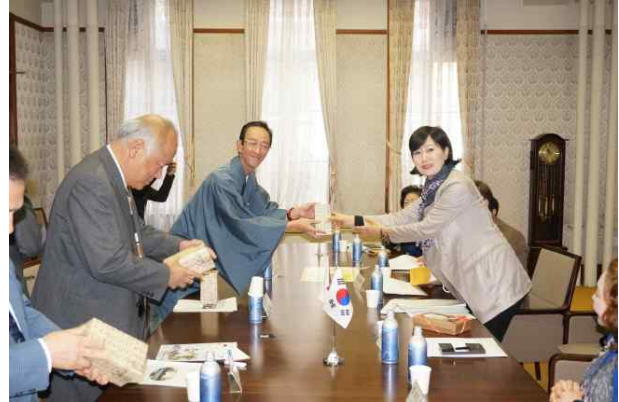
회파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같은 사고방식이나 의견을 갖는 의원들이 모여 만드는 시회 내 단체를 말하며, 회파의 결성은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이 필요하다고 한다.(회파별 사무실 제공, 무소속은 각각 회파 간주)

양 도시 의원들은 앞으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북돋으며,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성신교류(誠信交流)를 해 나가기를 약속했다. 또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이 요구되는 글로벌

시대에 두 도시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관계의 지평을 넓혀나가기에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교토시회와 고양시의회 간담회



무쿠다 의원과 권순영 위원장 기념품 교환

○ 교토시회 시설 견학



교토시회 본회의장 시찰



본회의장에서 단체사진

● 시사점

교토시회는 풍부한 자연과 지역의 고유자원,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부심과 시민을 시정의 주역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양도시간 의회차원의 교류와 협력방안 논의했으며, 일본 지방자치 제도 및 교토시의회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제도 견학했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모델을 개발해 함께 발전해 나가기에 약속했다.

3. 교토 부립 사가노(嵯峨野) 고등학교

- 방문일시: 2014. 10. 29(수) 14:00~16:00
- 장 소: 회의실
- 참 석 자: 야마구치 타카노리(山口隆範) 교장, 이토 후미아키(伊藤文昭) 국제문화교류주임 등 교직원 7명

● 기관현황

- 개 교: 1941년 10월 20일
- 위 치: 京都市 右京區 常盤段ノ上町15番地
- 홈페이지: <http://www.kyoto-be.ne.jp/sagano-hs/>
- 학교현황

쇼와 16년(1941년) 교토부립 사가노 고등 여학교로 개교, 쇼와 25년(1950년) 현재의 학교명을 갖게 되었다. 교시(校是)는 화경(和敬), 자강(自疆), 비상(飛翔)이다.

보통과와 코스모스과(보통과를 기반으로 인문 예술, 국제 문화, 자연과학 3개 계통에 대해 적성과 취미에 맞는 집중 교육)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토 내의 공립고교 중에서 국공립대학 합격수 6년 연속 1위의 빛나는 진학성적을 거두고 있다.

2012년 4월부터 SSH(수퍼사이언스하이스쿨, 미래의 국제적인 과학 기술 인재육성)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4월부터 새롭게 “과학 기술 인재 육성 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사가노고등학교 전경



컴퓨터 수업중인 학생들

● 방문내용

야마구치 타카노리(山口隆範) 교장을 비롯하여 이토 후미아키(伊藤文昭) 국제문화교류주임 등 분야별 주임 선생님이 모두 함께 고양시의회 방문에 성심껏 준비해 줬다. 이토 국제문화교류주임이 사가노고등학교 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사가노고등학교는 교토부립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슈퍼글로벌 및 슈퍼사이언스 프로그램에 국가로부터 각각 1,600엔, 2,300엔을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입학 과목은 5개 과목이며, 입학 경쟁률은 2대 1에 달하는 등 교토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수업료는 연간 18만엔이며, 학교 운영 예산은 연간 4,000만엔이 소요된다.

학생들의 95% 이상이 체육, 음악 등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시 이전에 하교한다. 한국과 같이 성적으로 유급되는 학생은 없으며, 간혹 질병이나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야마구치 교장의 학교 설명



사가노고등학교 우수시책 소개



사가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가노고등학교 교직원과 단체사진

○ 학교 시설 견학

학교 자습실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일찍 등교하거나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과학실 운영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도서관 시설은 훌륭한 편이었다.



넓은 복도 공간



학교 자습실 시찰



학교 과학실 견학



학교 도서관 둘러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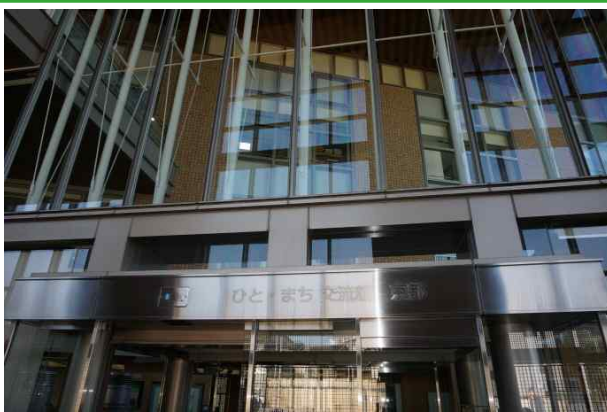
● 시사점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시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나 학생들이 학교 동아리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하교를 일찍하는 등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스모스과 운영 제도와 진학 프로그램은 배울 점이 있다.

4. 사람·마을 교류관 교토(ひと・まち 交流館 京都)

- 방문일시: 2014. 10. 30(목) 10:00~12:00
- 장 소: 제3회의실
- 참 석 자
 - 공익재단법인 교토시경관·마을만들기센터(京都 景観まちづくりセンター) 츠지 마키코(辻眞紀子) 사업제일과장
 - 사회복지법인 교토시사회복지협의회 야부타 코지(藪田浩司) 주임, 오시카와 아키라(吉川彰) 주임



사람·마을 교류관 교토



교류관에서 단체사진

● 기관현황

- 홈페이지: <http://www.hitomachi-kyoto.jp/>
- 위 치: 京都市下京區西木屋町通上ノ口上る梅湊町83-1
- 주요현황

「사람·마을 교류관 교토」는 「시민활동종합센터」, 「복지자원봉사센터」, 「장수건강 센터」,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의 4개 센터의 복합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사람이 주역인 마을 만들기를 위해 탄생한 「사람·마을 교류관 교토」는 교토 시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NPO 활동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을 추진·지원하는 거점으로서 2003년 6월 23일 설치되었다.

재해 시에는 재해 자원봉사 활동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역할도 담

당하고 있으며, 「교토에 살고 있어 좋았다」라고 실감하는 마을 만들기기에 기여하고 있다.

● 방문내용

먼저 츠지 마키코(辻 真紀子) 사업제일과장이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경관·마을만들기센터는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는 파견의 목적·기간에 따라 코디네이터와 컨설턴트의 2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코디네이터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1년간 파견하며, ◇컨설턴트는 주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으면 1일 단위로 파견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가 있는 지역 내의 대다수의 주민 등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

마을만들기 활동 조성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대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 금액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의 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또는 50만엔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보조금은 완료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정산하여 교부하며,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마을만들기 활동 조성도 3년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츠지 사업제일과장 사람·마을 교류관 브리핑



츠지 사업제일과장 경관·마을만들기 사업 설명

< 지역 공생의 토지 이용 사례 >

▷ 교우 초(京町家)의 보전과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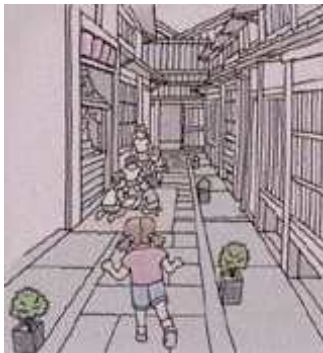
혁신사례



혁신사례



▷ 대로(袋路)의 재생(再生)



공동 재건축 사례



재생을 생각하는 워크숍

▷ 지역과 공생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설



워크숍



건물 모형

▷ 상가형 공동주택



마을과 공생하는 공동주택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48,000건의 경우 3,000건 정도가 보조금을 받았으며, 대부분 용자에 의해 사업을 하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고 한다. 기금은 모금, 자판기 운영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중 금리보다 낮게 용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야부타 코지(藪田浩司) 주임이 재해보란티어센터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법인 교토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재해보란티어(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에 대한 이해의 촉진, 시민 참여의 촉진, 네트워크 만들기, 활동을 위한 환경정비 등의 종합적인 대처를 진행시켜 나간다고 한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 발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 자원봉사 정보 잡지의 발행(월간 종이 등), 고령자·장애인 지원(컴퓨터 교실·상담), 언론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계발, 자료·서적·비디오 등 학습 연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 봉사자를 구한다" 등의 상담에 관한 조언·협력, 상담원 교육·연락 회의 개최, 기업 등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상담·지원, 각 구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 체험 사업(유스 액션)의 추진, 복지 교육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의 인재 양성, 방재·복지 구호 훈련 실시, 방재·복지 구호 심포지엄 개최, 재해자원봉사센터 정비 등 재해·복지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교토시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상근 직원은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배려하고자 9시 30분까지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는 홈페이지나 정보지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장비나 음식,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자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

연간 자원봉사자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연간 5만 7천 5백 7십여명이 보험가입(※자원봉사자가 직접 자비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야부타 주임의 재해보란티어 브리핑



자원봉사 안내 정보지

○ 교류관 시설 견학



교류관 내부 전경



교류관 사무국



교류관 시설 견학



마을만들기 추진사업 홍보관 둘러봄

● 시사점

시민이 협동하여 살기 좋고 교토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항, 재해 자원봉사활동의 거점 역할 수행, 다양한 분야의 보란티어 활동과 비영리 시민 활동 등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 고양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교토시민방재센터(京都市市民防災センター)

- 방문일시: 2014. 10. 30(목) 15:00~16:00
- 장 소: 교토시민방재센터



교토시민방재센터 전경



방재센터 앞에서 단체사진

● 기관현황

- 위 치: 京都市南區西九條菅田町7番地
- 홈페이지: http://web.kyoto-inet.or.jp/org/bousai_s/
- 규 모: 지상 3층
- 사 업 비: 39억엔(토지 구입: 16억엔, 건축·전시: 23억엔)
- 운영주체: 교토시(재단법인 교토시 방재협회)
- 주요현황

재단법인 교토시 방재 협회는 방재 사상 및 방재 지식의 보급 및 방재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지도 기타 지역 방재 체제의 확립에 이바지 사업을 추진하고 가지고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어른도 아이도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방재 및 재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실 체험형 이벤트 제공하고 있다.

생활안전(노인체험)은 이곳만의 특화된 체험이며, 헬리콥터 전시를 통해 직접 탑승하여 영상체험을 할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토시민이 주요 방문객이며, 연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학교에서 체험행사로 방문하는 빈도가 높다.

각 코너에서 설명하는 운영요원은 인력파견소 등에서 파견하고 있으며, 건립 후 15년이 지났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리뉴얼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 방문내용

○ 강풍체험: 풍속 32m의 강풍시 행동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자연 재해 위험성에 대해 안내받음.



강풍체험 1



강풍체험 2

○ 소방체험: 모니터에 모의 화재를 투영하고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의해 소화 방법을 배움.



소방체험 1



소방체험 2

○ 피난체험: 호텔 화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평소 경험할 수 없는 연기 속 대피 행동을 경험함.



피난체험 1



피난체험 2

○ 지진체험: 진도 4~7의 흔들림을 체험하고 지진 발생 시의 마음가짐과 평소의 준비를 소개함.



지진체험 1



지진체험 2

● 시사점

재난에 대한 괴로움, 슬픔보다는 즐거운 체험을 통해 재난 대비를 하자는 의미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지진 체험과 강풍 체험, 생활 안전(노인 체험) 체험 등 특화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우리 고양시가 벤치마킹할 점이다.

6. 오사카 도톤보리(道頓堀) 및 신사이바시(心齋橋駅) 견학

○ 방문일시: 2014. 10. 30(목) 15:00~16:00

○ 주요내용

도톤보리는 오사카 남쪽지역중심인 난바, 미도스지, 센니치마에, 니폰바시, 신사이바시 등과 연결된 곳으로 이전에는 오사카를 상징하는 변화가였으나 상권이 우메다로 이동함에 따라 도톤보리의 명성을 되찾고자 에비스바시부터 다자에몬바시 사이 강의 양안에 약 8미터 폭의 산책로를 2004년 12월 완공하여 물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도톤보리 리버워크 정비 후 화려한 야간조명과 특색 있는 상가들 특히 돈키호테의 대관람차나 쇼핑센터 및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 등을 활성화시키고, 유람선을 운행하면서 관광객과 오사카 시민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 시사점

도톤보리 리버워크는 도시의 매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오사카는 전체면적의 약 1%를 차지하는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변환경의 정비, 수상교통의 활용 방안 마련, 물의 회랑 만들기 등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계획의 추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배울 점이 많다.



도톤보리 리버워크



신사이바시 거리 풍경

7. 일본 전통시장 방문

● 교토 니시키(錦) 시장

○ 방문일시: 2014. 10. 30(목) 16:00~17:00

○ 주요내용

니시키시장(錦市場)은 좁은 길로 이어진 재래식 시장으로, 백 개 이상의 상점들이 늘어서 있다. 야채 절임과 같은 교토(京都) 지역 특산품들을 비롯해 신선하고 준비된 음식과 일본풍의 디저트, 말린 음식, 초밥, 신선한 해산물, 야채 등을 팔고 있다.

가게들은 주로 한가지 음식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 많으며, 같은 종류의 가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니시키 시장은 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점들은 여러 대에 걸쳐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시장은 모두 생선 도매시장으로 시작했으며, 가장 처음 문을 연 곳은 1,3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른 종류의 가게들은 조금씩 나중엔 이곳으로 흘러들어 왔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도매시장이 소매 시장으로 바뀌었다.



니시키 시장 입구



니시키 시장 풍경

● 오사카 쿠로몬(黒門) 시장

○ 방문일시: 2014. 10. 31(금) 16:00~17:00

○ 주요내용

메이지 시대 말기까지 쿠로몬(黒門) 시장은 근처에 엔메이지라고 불리던 큰 절이 있어서 엔메이지 시장이라고 불리었다. 절의 북동쪽에

검은 문이 생긴 이래 시장은 쿠로몬시장(검은 문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시장의 총 길이는 600m 가까이 되며, 국내외 각지에서 들여온 신선하고 질 좋은 생선, 고기, 야채, 계란 등을 파는 170여 채의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170여 년 동안 고급 레스토랑 주방장에서 일반 주부들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맛과 신선함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 때문에 쿠로몬시장을 찾고 있다.



쿠로몬 시장 입구



쿠로몬 시장 내 상점

● 시사점

니시키 시장 상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직접 청소에 나서는 등 위축되는 재래시장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점마다 이벤트를 개발하고, 대를 이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를 특성화하는 등 끊임 없는 노력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화된 사회의 틈바구니에서 오늘날의 재래시장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고양시가 가야 할 재래시장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방문성과 및 시사점

○ 이번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일본 연수 슬로건은 “글로벌 시대 해외 우수사례 연구”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 마을만들기 센터」, 「교토시의회」, 「교토 사가노고등학교」, 「교토 사람마을 교류관」 등 일본의 주요기관을 공식 방문함으로써 선진국의 우수한 시설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 먼저 나라마을만들기 센터 방문에서 역사적인 지역 사회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과 지역 사회의 인재들이 경험을 교환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펼쳐 도시계획 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점은 고양시의 지역 특성과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 교토시의회 방문에서는 양도시간 의회차원의 교류와 협력방안 논의했으며, 일본 지방자치 제도 및 교토시의회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제도 견학했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모델을 개발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약속했다.

○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시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나, 학생들이 학교 동아리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하교를 일찍하는 등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가노고등학교의 코스모스과 운영제도와 진학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 또한, 교토 사람마을 교류관에서는 시민이 협동하여 살기 좋고 교토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항, 재해자원봉사활동의 거점 역할 수행, 다양한 분야의 보란티어 활동과 비영리 시민 활동 등 시민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 고양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교토시는 2007년부터 과감한 규제와 지원으로 새로운 경관 정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며, 이 경관 정책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법률체계를 크게 변경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교토시 경관 정책은 단지 거리의 외관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토 거리 활력의 유지·향상, 즉 교토의 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토의 주택은 마치 과거의 도시를 재현해 놓은 듯이 보였다. 물리적인 규제와 정비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토시의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교토 시민방재센터 방문에서는 재난에 대한 괴로움, 슬픔보다는 즐거운 체험을 통해 재난 대비를 하자는 의미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지진체험과 강풍 체험, 생활 안전(노인 체험) 체험 등 특화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우리 고양시가 벤치마킹할 점이다.

○ 한편, 일본은 가히 자전거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전용 건널목 구간이 있으며, 유료 자전거 주차장을 볼 수 있다. 자전거 사용이 등록제로 되어 있어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자전거를 불법주차하면 딱지를 떼기도 한다. 우리의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정부에서 마련한 자전거와 관련된 규칙과 제도가 철저히 자리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자전거 문화를 우리도 즉시 도입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일본을 돌아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점은 거리의 어디에서도 휴지 등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며,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조차도 화장실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의 모습을 보고 기초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남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 지난 4박 5일은 짧은 일정이긴 하였지만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고양시의 비전은 무엇이고 진행 경과와 문제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앞날을 위해서는 물론, 현재를 위해서도 다각적이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이번 연수 또한 고양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향후 고양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를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배움의 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배우고 익히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이처럼 일본 교토, 나라, 오사카 지역을 견학하며 보고 느꼈던 점은 분명 우리에게 보약과도 같이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비교시찰에 참여한 8명 의원 모두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고심할 것이며 또한 이번 시찰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 및 의정활동에 적극 적용하려 노력할 것이다.